

각당 청년정책 앞다퉀 발표...가산점 주고 비례 우선순위

뉴스 초점 / 지역 정가 지방선거 준비 속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기초의회 공천 심사에 들어가는 등 지역 정가도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 덕분에 출마자들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년특구와 비례대표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옛 국민의당에서 쪼개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분당 진통에 따른 낮은 정당 지지율 속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 2년 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천차 지름이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또한 출마 입지자를 찾기 위해 애를 먹고 있다.

각 정당은 '촛불민심'으로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늘 것으로 보고, 청년 가산점을 높이고 청년 비례대표에 우선 순위를 배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서 입후보자를 찾기 못하고 있는 일부 정당도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도 이번 지방선거의 특색 중 하나라고 꼽힌다.

민주당이 가장 빠르게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지방선거기 확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서둘러 꾸렸고, 22일 예비후보자 검증 최종 신청을 마감했다. 또 오는 26일~30일까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서류접수를 통해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면접과 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오는 4월15일 경선 참여자를 발표하게 되고 이르면 4월 마지막주나 5월 첫 주에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든 공천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후보자 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덕분에 경선 참여자가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넘쳐나는 민주당 내달 2~14일 면접·심사 이르면 4월 마지막주 경선

평화당 이달중 공천 심사 한국당·바른미래당은 후보 못찾아 발만 동동

하지만, 자유한국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최근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공천심사를 본격화했지만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아 발을 구르고 있다. 이날 현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입후보자 2~3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오는 29일까지 출마자 등록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불모지이다 보니 현재 출마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중앙당 차원에서 출마 후보군을 압축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막판 후보 물색에 고심 중이다. 22일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가동한 바른미래당은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민주당·민주평화당과 승부를 겨룰 후보군을 찾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후보군이 압축되지는 않았지만 권역별 최고위원이 이날 청년간담회를 여는 등 30~40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1~2번을 여성과 청년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성환 동구청장의 입당으로 현재 구청장 후보를 보유하게 된 민주평화당도 광주·전남지역에서 돌풍을 일으켜 '호남 맹주'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각오로 후보



“당원 명부 유출 신속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예비후보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관련해 이용섭 예비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군을 물색하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20일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최경환 시장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공천 관련 조지를 강화하고 있고, 이날 중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가 4월 중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평화당은 김성환 동구청장과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 등을 중심으로 광주지역 5개 구정당 선거에 모

두 후보를 내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최소 절반 이상의 광역·기초위원을 배출한다는 목표로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광주광역시당 6·13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점입가경' 예비후보 4명 공동 회견 이용섭 자격 박탈 요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올 초 불거진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장 후보들이 '경선 보이콧' 가능성까지 열어 둔 채 "이용섭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자격 박탈"을 중앙당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혀 '경선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경선 파행도 우려된다.

강기정·민형배·최영호 후보는 2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용섭 예비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명부 유출 사건으로 후보 경선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입장을 같이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양향자 후보는 당 최고위원으로 입장표명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병훈 후보는 기자회견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4명의 예비후보는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이 시장 자체 조사를 통해 엄연한 불법으로 판명이 났다"면서 "이용섭 예비후보 측이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마무리된 뒤 민주당 경선이 치러질 광주시민과 당원들은 강력히 원한다는 사실을 경찰도 엄중히 인식하고 불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결단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강기정 후보 경선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 강 예비후보를 고소한 일부 당원들이 이용섭 예비후보 측 측근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선대책위는 "강 후보를 고소한 A씨는 과거 이용섭 예비후보가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 대의원이자 20대 총선 당시 광산 모 지역 총괄본부장이며, B씨는 이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고소에 동의한 C, D씨는 현재 이 후보 캠프에서 근무 중이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

“5월 4일” vs “6월말”...여야 개헌협상 마지노선 충돌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 민주 “지방선거 동시 투표” 한국 “지방선거 후에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개헌 마지노선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4월 20일과 5월 4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4월 20일까지 개헌안 합의를 이루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5월 4일까지는 반드시 협상을 끝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 20일은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한 날짜다. 4월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므로 '개헌'과 '남북대화'라는 두 가지 대형 이슈가 충돌하지 않도록 회담 전에 개헌부터 마무리 짓겠다는 계

산이 깔렸다. 또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27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5월 4일은 여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이 날짜는 외부적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온전히 현행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지방선거 날짜(6월 13일)로부터 역산해 산출한 것이다.

정부 개헌안이 오는 26일 국회로 넘어 오면 5월 24일이 의결 시한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5월 24일에 정부 개헌안이 아닌 국회 개헌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면 5월 4일까지는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그러야만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5월 24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 시간표대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대신, 한국당은 헌정 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오는 6월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